

한국공간환경학회-충남발전연구원 공동워크숍  
한국공간환경학회 2014년 하계세미나

< 자료집 >

- ▷ 일시 : 2014년 8월 22일(금) ~ 23일(토)
- ▷ 장소 : 한국문화연수원
- ▷ 주최 : 한국공간환경학회, 충남발전연구원

## <일 정>

1. 일시 : 8월 22일(금) 오후 ~ 8월 23일(토) (1박 2일)

2. 장소 : 공주시 한국문화연수원 (공주 및 세종시 답사)

### 3. 일정

#### <1부> : 8월 22일(금)

- ~15:30 : 집결 (한국문화연수원)
- 15:30~17:00 : 마곡사 답사
- 17:00~17:30 : 휴 식
- 17:30~19:40 : 장소이동 및 저녁식사

#### <2부> : 8월 22일(금)

- 20:00~21:00 : <글로벌 통합시대 지역발전과 환경 쟁점의 New Frontier> 토론회
  - 1) 기조발제 - 김용창 교수
  - 2) 집단토론 - 참석자 모두
- 21:00~22:00 : <세종시의 발전과제와 충남> 토론회
  - 1) 기조발제 - 박세훈 박사
  - 2) 집단토론 - 참석자 모두

#### <3부> : 8월 22일(금)

- 22:00~24:00 : 친목 시간
- 24:00~ : 취 침

#### <4부> : 8월 23일(토)

- 08:00~09:00 : 기상 및 아침식사(숙소 식당)
- 09:00~09:40 : 세종시로 이동
- 09:40~12:00 : 답사 및 토론

# 일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통합시대 공간 환경 연구의 New Frontier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kimyc@snu.ac.kr)

## 1. 사회현상의 이해에서 공간적 사고의 부활

1980년대 이래 학문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공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공간자체에 대한 인식론적·존재론적 사유를 다루는 공간론에 대한 국내 번역서가 많아지는 현상에서 잘 알 수 있다. 얼핏 훑아보아도 이푸 투안(1995) 『공간과 장소』, 에드워드 소자(1997) 『공간과 비판사회이론』, 자크 데리다외(1998) 『공간의 논리』, 그레이엄 클라크(1999) 『공간과 시간의 역사』, 노베르크 솔츠(2001) 『장소의 혼』, 베노 베블렌(2003) 『사회공간론』, 에드워드 렐프(2005), 『장소와 장소상실』, 하름 데 블레이(2009) 『공간의 힘』, 마르쿠스 슈뢰르(2010) 『공간, 장소, 경계』, 요시하라 나오키(2010) 『모빌리티와 장소』, 슈테판 쿤첸(2010) 『토폴로지』, 이푸 투안(2011) 『토폴로피아』,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2011) 『인간과 공간』, 앙리르페브르(2011) 『공간의 생산』, 팀 크레스웰(2012) 『장소』, 데이비드 딜레니(2013) 『영역』, 마이크 크랭, 나이절 스리프트(2013) 『공간적 사유』, 존 어리(2014) 『모빌리티』 등의 공간론 관련 저서가 번역되었다.

이처럼 1980년대 이후 학문세계나 현실세계 모두에서 공간적 관점이 주목을 끌고 있다. 철학적으로는 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이 다양한 포스트주의가 기능주의와 합리성 및 계몽주의 사유양식을 강조하는 근대성에 입각한 거대담론의 대안을 추구하면서 개성, 특성, 차이, 정체성, 수평성, 이질성 등을 주목하고, 그 물적 토대로서 공간 또는 지역을 중시하고 있다. 현실세계에서는 초국적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지역경제블록단위, 새로운 집적지역 및 광역도시권의 출현, 새로운 지역주의 출현, 유럽연합의 출현과 같은 국민국가 역할의 재구조화와 지역정치의 부상으로 통치(governance)의 새로운 공간단위가 만들어지면서 공간과 지역이 정치경제적으로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다(김용창 2011).

## 2. 공간에 대한 사유양식의 변화와 공간의 사회적 생산

공간적 사유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갖지만 학문적 대상으로서 공간의 부상은 19세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라는 거대한 역사적 전환기는 두 개의 근대운동을 낳았다. 하나는 맑스주의 전통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주의적이고 실증주의적인 사회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양 전통 모두 역사주의적 사고 또는 시간 중심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리 또는 공간은 사회의 물리적 배경으로 간주하거나 환경결정론이 이유로 Soja의 표현을 빌면 ‘더러운 목록물’처럼 버려진 시기이기도 하다. 이후 20세기 중반까지는 지역적 차이를 세밀하게 조사하고 기술하는 영역으로 박제화된 탓에 학문세계에서 일종의 잔여적 고립지대로 머물게 되었다(Soja, 1997). 공간이 사회과학에서 새로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이며, 맑스주의, 포스트주의의 접근을 채택하면서 공간 자체에 대한 이론적·철학적 논의와 공간적 사유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표 1 참조).

<표 1> 지리학사 주요 저서의 구성 체계

저 자	Johnston & Sidaway (2004)	Cresswell (2013)	Aitken & Valentine (2006)
구 성 체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리학의 학문적 특성</li> <li>· 근대 학문으로서 지리학의 정립</li> <li>· 지리학에서 체계적 접근과 과학적 방법의 채택</li> <li>· 공간과학으로서 인문지리학</li> <li>· 인본주의 지리학</li> <li>· 급진주의 지리학</li> <li>· 포스트모던 지리학</li> <li>· 페미니스트 지리학</li> <li>· 지리학의 응용과 사회참여 논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대지리학과 근대지리학의 형성</li> <li>· 지역에 대한 사유</li> <li>· 공간과학과 계량혁명</li> <li>· 인본주의 지리학</li> <li>· 맑스주의 지리학</li> <li>· 페미니스트 지리학</li> <li>· 포스트모더니즘과 차이의 지리학</li> <li>· 탈구조주의 지리학</li> <li>· 관계적 지리학</li> <li>· 인간주체를 넘어서는 포괄적 지리학</li> <li>· 배제의 지리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리학적 연구의 사유양식과 방법</li> <li>· 실증주의 지리학과 공간과학</li> <li>· 인간주의와 민주적 장소의사결정</li> <li>· 차이, 관계, 구성에 대한 페미니스트 지리학</li> <li>· 맑스와 맑스의 정신</li> <li>· 행태주의 지리학의 철학적 기반</li> <li>· 구조화이론: 행위주체, 구조, 일상생활</li> <li>· 세계에 대한 얇은 기반으로 리얼리즘</li> <li>· 포스트모던 지리학과 근대성의 몰락</li> <li>· 구조주의 이론들</li> <li>· 행위주체-네트워크 이론과 지리학의 관계적 접근</li> <li>· 공간, 텍스트성과 권력에 대한 탈식민주의 지리학</li> </ul>

공간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 또는 철학적 접근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이래 공간에 대한 이론적 검토는 주로 공간과 사회관계 또는 공간과 사회의 변증법적 관계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주목을 받은 관점이 공간생산론이라고 할 수 있다. 르페브르는 사회적 공간을 공간적 실천, 공간재현, 재현공간이라는 이른바 spatial triad(르페브르, 2011; Elden, 2007) 사유체계에서 공간생산론을 전개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사고를 더욱 발전시킨 것이 하비의 공간생산론이다. 하비는 『자본의 한계』를 집필하면서 맑스의 자본론, 잉여가치학설사, 정치경제학비판요강 및 기타 정치경제학에 대한 보조적인 저작들이 설계한 틀 내에서 자본주의적 도시화와 지리적 전환을 알고자 했다고 술회한 바 있다. 즉 맑스의 정치경제학을 지리학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주해(exegesis)를 함으로써 공간생산, 도시화, 불균등 지리적 발전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이론을 구축하여 맑스가 미완의 영역으로 남겨놓은 부분을 통합하려고 시도한다. 자본축적 과정은 시간에 의한 공간의 극복과정이지만 그 과정은 반드시 새로운 공간의 생산과 축박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공황의 공간적 해결(자본의 잉여분을 흡수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공간적 해결)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지리적 불균등 발전을 낳는다고 본다(김용창, 2012)

이제 이와 같은 근본적 대상들에 대한 미완의 영역을 고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이 등장하는 쟁점들, 기존 쟁점들의 성질전환, 실천적 미래를 전개하기 위한 새로운 쟁점의 발굴, 이 모든 것에 대한 한국적 특성의 반영 등에 대해서 공간 환경 분야가 응답 대처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한 것이지만 단순한 메시아적 미래연구나 과학기술주의적 미래연구를 넘어 ‘현재의 실천적 전개’에 따른 미래를 조망하고 연구하는 것은 실천적 대안의 형성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아울러 공간의 생산과정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범주의 설정이나 분석개념의 발굴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만 보다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의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3. 공간적 사유의 새로운 쟁점

공간과 사회에 대한 사유체계는 공허한 형이상학적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 중요한 문제이다. 공간에 대한 존재론과 인식론의 탐구는 궁극적으로는 공간적 실천론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즉 일상생활의 공간을 어떻게 개선 또는 개혁할 것인가, 지역발전은 어떤 이념상에 기반하여 어떠한 전략으로 구성할 것인가를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의 흐름은 공간의 생산과정에 대해 보다 세밀한 분석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분석 또는 설명개념을 찾는 과정이면서 새로이 출현하고 있는 쟁점을 선제적·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이중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작업은 이전과는 달리 집단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들어 ○○○ 핸드북, 21세기 ○○○, Key Concepts, 전문분야 백과사전 시리즈의 출판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준다. 아울러 도시, 경제, 문화, 사회, 철학 등 공간 환경 관련 세부 분야별로도 이러한 유형의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sup>1)</sup> 이러한 작업들은 그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새로운 세기를 위한 새로운 지식과 지식생산 지평을 전개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고, 구명망가 중심의 저술을 넘어 새로운 세대의 다양한 전문 학자가 다수 등장하면서 나타난 역량의 증대를 반영하는 성과이기도 하다. 다음은 몇몇 주요 성과를 정리한 것이다.

#### 1) 미래연구 분야와 쟁점형성

미니컴퓨터로 명성을 떨쳤던 DEC사의 올슨(Ken Olson)은 1977년 “집에 컴퓨터를 갖고 있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1983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게이츠(Bill Gates)는 “우리는 32비트 운영시스템을 절대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지금 생각하면 아주 이상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역설적으로 세상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래연구는 미국이나 핀란드처럼 미래예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제화한 국가도 있으며,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맞게 국제질서를 주도하기 위한 전략적 필요성, 새로운 국가 도약을 위한 대응전략 수립, 국가의 질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발전모델의 수립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외 주요 미래전망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트렌드나 쟁점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메가트렌드 또는 미래의 주요 쟁점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보다 중요하고 핵심적인 트렌드나 쟁점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다. 국내의 연구는 주로 기존 미래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서 핵심트렌드와 쟁점을 도출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2차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김용창, 2010).

---

1) 예를 들자면 Approaches to Human Geography, Key Texts in Human Geography, The SAGE Handbook of Geographical Knowledge, The Handbook of Evolutionary Economic Geography, The Oxford Handbook of Economic Geography, A Companion to Cultural Geography, Cultural Geography: A Critical Dictionary of Key Concepts, A Companion to Social Geography, A Companion to Feminist Geography, A Companion to Health and Medical Geography, International Handbook of Urban Policy, A Companion to Environmental Geography, Key Concepts in Development Geography, Postcolonial Studies: The Key Concepts, Key concepts and techniques in GIS 등이 그 사례이며, 21세기 들어서 유사형태의 집단작업 성과들이 매우 많이 출간되고 있다.

<표 2> 미래트렌드의 전망과 미래사회의 양상

보고서	전망부문	주요 미래트렌드와 이슈
The Millennium Project (2009)	15대 지구적 도전과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위생적인 수자원 확보, 인구증가와 자원 배분, 민주주의의 확산, 장기적 관점의 정책결정, 정보통신 기술융합, 빈부격차의 완화, 질병의 위협, 불확실성시대 의사결정 역량제고,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 억제, 여성권의 신장, 국제범죄조직 확산, 에너지수요 증가, 과학기술 발전, 윤리적 의사결정
	미래사회 변화 동인 35가지	경제윤리, 삶의 질을 반영한 신개념 GNP/GDP, 글로벌 공유재 보존, 집단지성 활용, 온라인 교육확산, 정보격차 감소, 자연자원 보존비용, 여성의 정치경제적 역할, 조세피난처와 비밀계좌 외부공개, 부의 개념 재정의, 수요와 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인위적 노력증가, 개인직접투자 증가, 탄력적 업무확대, 인터넷을 통한 고용증가, 경쟁적 지능, 소유권 약화, 새로운 경제이론 출현, 개인 및 국가지성, 지리적 경계의 소멸, 원격통제, 새로운 금융규정, 이해기반 경영확산, 초월적 새로운 기관 형태 출현, 글로벌 최저임금, 인터넷 주거재 시장 부상, 신 기축통화 부상, 금융상품 정보공개 확대, 바이오 자원에 대한 원주민 소유권 인정, 금융안정 글로벌 메커니즘, 세계 단일화폐 등장, 컴퓨터기반 인공적 삶 확산, 노동조합 국제화, 개인평가시스템 등장, 사이버 세계의 등장, 지역화폐 등장
Future Mapping for the Global Agenda (2008, World Economic Forum)	2030년 트렌드 주요 조사결과	① 2030년 가장 급박한 이슈: 지구온난화와 자원고갈 및 비대칭 전쟁, ② 권력이동 1: 국가권력의 상실 및 기업과 개인의 권력 강화, ③ 권력이동 2: 중국의 부상 및 영국과 프랑스의 약화, ④ 대량살상무기: 비국가적 행위주체의 대량살상무기 이용증가 및 위험증가, ⑤ 행위주체의 변화: 중국의 Blackstone 매수(세계 최대 사모펀드 그룹)와 유럽의 극단분리주의 활동 및 빈부격차심화
	2030년의 생활	① 주택: 인간과 교감하는 전자첨단주택, 탄소제로주택, 가변형 조립식 주택 및 저가주택의 대량생산, ② 음식: 영양섭취 이상의 음식문화, 전통적인 음식습관 부상, 건강중심의 음식, 전자적 음식정보체계 발달, ③ 학습과 교육: 글로벌 슈퍼스타 교육자, 맞춤형 평생교육, 디지털교육체계, 협동적·비판적·문제해결중심의 사고력 중시, ④ 직업과 노동: 가상적·유연적 작업체계, 고령여성노동력의 역할 증대, 재생의학, 유전자 프로그래머 등 새로운 전문직종 각광, ⑤ 교통: 새로운 교통수단 및 연료, 초고속단거리 교통, 우주여행, ⑥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의 일상화와 실시간 생활통제, 실시간 통역 및 소수언어와 방언의 번성, 컴퓨터 및 개인기반 소통, ⑦ 여가생활: e-babies, 아바타 및 사회네트워크를 포함한 확대가족, 디지털 매체의 확대와 가상휴일, 전자장치에 기초한 단순휴식체계 및 여가관리
20 Forecasts for 2010-2025 (2009, WORLD FUTURE SOCIETY)	2010-2025에 유행할 혁신적인 발전	유전자 기술의 혁명적 발전과 산업화, 물 부족과 새로운 석유로서 물의 산업화, 초고속무선통신(WiMAX)의 보편화, 수명연장과 고령화, 생물학적 폭력과 위험의 증가, 발명기술의 자동화와 혁신, 일본의 개인용 로봇시장장악, 홀로그램 3D TV의 출현, 인공지능 컴퓨터의 현실화, 전기자동차의 실용화, 중국에서 종교의 부활과 중동에서 이슬람 근본주의 퇴색, 폐기유전에서 다시 석유생산, 해조류 연료의 상용화, 나노기술 발전과 미세작업 물질가격의 하락, 밀레니엄세대의 사회장악, 양자컴퓨터와 정보혁명, 태양에너지 효율의 발전, 프로슈머의 전면화, 가상교육의 지배, 유전적 질병의 정복

The Next Big Thing (2009, FP)	인류가 직면할 13개 미래이슈	종의 진화를 설계 및 통제하는 신인류, 개인 맞춤형 교육, 신체정보를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에 기반 한 감정 다스리기, 비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행복, 금융부문의 위축,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는 미국, 도시의 영향력이 커지는 신중세주의, 아프리카의 잠재력, 지속가능성을 대체하는 회복성(resilience), 바이오연료산업의 발전, 물 부족 시대의 도래, 크게 달라지지 않는 세계, 21세기 중반 아주 강력하고 놀라운 변화
Mapping the Global Future (2004, NIC)	향후 15년에 걸친 핵심 지구적 트렌드	세계화의 심화와 서방화의 약화가능성, 높은 세계경제성장, 글로벌 기업의 증가와 신기술 확산가속화, 아시아의 부상, 기존 강대국 인구고령화, 글로벌 에너지 수요 충족, 비국가적 행위주체 역할 증대, 이슬람 정치세력의 힘 지속, 일부 국가의 WMD 역량 제고, 강대국 사이 안정 및 중동과 아시아 지역 등 일부 국지적 정세불안, 환경·윤리문제의 전면화, 미국의 유일강대국 유지
Smarter Planet (IBM)	smarter cities의 비전	① 세계경제에서 도시의 핵심역할 수행과 국가-도시정부 관계 변화, 도시와 기술의 융합; 상호연관체계로서 도시비전과 시스템 개혁을 통한 ‘똑똑한 도시’ 건설 ② 도시의 6대 시스템: 주민(인구구조와 인구품질, 질병문제), 비즈니스(도시행정비용 절감과 규제완화), 교통(혼잡비용의 대처), 통신(정보격차 해소), 물(물 부족과 수자원 관리 효율성), 에너지(온실가스 감축)
	향후 도시기술과 도시모습	① 보다 건강한 면역 시스템을 갖춘 도시, ②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감지하고 반응하는 빌딩, ③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승용차와 도시버스, ④ 도시 식수난 해소 및 에너지 절약을 돕는 똑똑한 시스템, ⑤ 긴급 상황 발생 전후 위기 대응 체계를 갖춘 도시
국가미래예측메타분석 (2008)	글로벌트렌드메타분석	① 경제: 지역통합, 프로슈머 및 지식집약 경제, 중국과 인도의 부상, 유럽의 쇠퇴, 초국적 기업의 역할증가, 바이오산업 팽창, 세계 단일통화 및 민족은행, ② 사회문화: 성평등 증진, 고령화, 기초보건품질 향상, 유전자학 및 생명공학, 사회적 격변과 심리적 불안정, 중산층 붕괴, 도시화 가속, 가상현실 세계, ③ 정치행정: 글로벌 파트너십, 네트워크 기업과 NGO, 이슬람국가들의 결속, 민주주의 확산, 테러와 극단주의, 지역 및 종교갈등, ④ 에너지·환경: 지속가능성 강화, 위험관리, 생물적 안전성, 신재생에너지 및 갈등, 화석연료의 지배 지속, 소행성 원자재 탐사, 산림과 농촌의 재부상, ⑤ 하부구조: 글로벌 하부구조 수요, 나노기술, 우주계획, 유전자 재생기술, 지구촌 데이터베이스, 정보통신기술 발전
국가미래예측메타분석 (2008)	국내미래예측큰테츠분석	① 사회문화: 노동인구감소, 사회양극화와 사회구조 및 생활양식 변혁, 소비가치변화, 지식·문화의 융합, ② 경제·산업: 글로벌 환경변화, 유비쿼터스 경제, 동반성장 및 감성중심 기업환경, ③ 정치·행정: 참여·유목형 정치환경, 결정자가 아닌 조정자 및 작은 효율적 정부, ④ 에너지·환경: 화석에너지와 자원고갈, 지구온난화, ⑤ 하부구조: 유비쿼터스 기술, 디지털 컨버전스, 네트워크 하부구조, 거대기술연구
미래 경제사회	미래전망에 대한	① 개인과 사회: 고령화, 정보과부하, 여성지위 향상, 개인과 가족의 다양화, 직업유연성, 지식정보화, 양극화, 미디어 혁명, 질병치료의 혁신 및 인간역할 변화, ② 기업과 시장: 초국적 기업, 기업윤리 강화,

전망과 과학기술 비전 (2007)	메타분석내용	기업의 가치공동체화, 유연적 기업, 노인산업 확대, 이윤구조의 양극화, 글로벌경제, 디지털경제, 소기업활동 증가, ③ 국가와 지역: 중국 인구문제, 국지적 전쟁, 중국·인도의 환경문제와 남미의 생태계 파괴, 사막화와 기후변화 악화, 지역주의와 지역국가 출현, 초국적 연합과 비정부행위주체의 역할 증대, ④ 세계질서: 대규모 인구이동, 다문화주의, 미국역할 강화, 국제기구의 증가, 비군사적 무기의 강화, 테러리즘 및 예측불능 위험 증가, 기후변화, 민주주의 확대, 신재생에너지, 인공세계, 국가격차 심화
메가트렌드 코리아 (2006)	20가지의 메가트렌드와 79가지의 미래변화상	접속사회로 전환, NGO 경제주도세력의 등장, 개인중심의 기술, 자발적 참여의 증가, 양극화의 가속화, 신중세적 국제사회로 전환, 현실원리의 초월, 디지털기술로 인한 인간능력의 진화, 커리어의 복잡화, 창조적 파괴, 작은 힘들의 전면적 부상, 경계의 소멸, 디지털경제패러다임, 신유목적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전환, 동북아시아의 다자주의화, 정부의 유비쿼터스화, 인간능력 가치증가, 미디어의 집중과 분산, 아이코닉 사회의 도래
한국산업의 발전비전 2020 (2005)	메가트렌드와 한국산업의미래상 제시	①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세계경제의 통합, 역학구도와 비교우위구조 변동, ② 노동 및 자원, 경영: 고령화, 환경과 자원문제, 금융시장패러다임, 지식경영과 윤리경영, ③ 기술혁신: 디지털 네트워크기술, 바이오경제, IT/BT/NT/신소재기술 및 기술융합, 국가전략기술, 기술패권주의, ④ 신문화와 소비: 수요조건변화와 신소비패턴, 신사회문화조류, ⑤ 한국특수성: 남북경제협력 및 통합, 지역혁신과 지역균형
국토 대예측연구 (2009)	국토특성에 적합한 미래예측방법론 정립	① 정치의 다극화: 국제사회 다극화, 테러 및 국지전 증가, 거버넌스 강화, 분권화, ② 경제의 글로벌화: 지역 및 국가 간 경제협력 강화, 다국적 생산네트워크 강화, 국제 금융시장의 다각화, 산업구조 고도화, ③ 기후변화 및 자원부족: 지구온난화, 재해 및 질병위협, 에너지 및 자원부족, ④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인구감소), 고령화, 가구 소규모화, ⑤ 가치관 및 문화의 다양화: 삶의 질 중시, 개인주의 심화, 다문화 사회 가속화, 노동유연화, 여성지위 향상, ⑥ 과학기술 발달 및 융복합화: 정보통신, 바이오, 나노, 에너지 및 환경기술 등 발달 및 융합

출처: 김용창(2010)

## 2) 지리학 분야의 새로운 연구쟁점

### ① Kitchin, R. and Thrift, N.(eds), 2009,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Human Geography, Elsevier. 총 12권, 6,500여 페이지분량

- 글로벌 통합시대 지구공간에서 일어나고 있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쟁점을 공간적 시각(spatial lens)으로 기록하고 설명하는 작업으로서 세계인문지리학 사전을 편찬한 것임. 그간 현대인문지리학은 이론적 개념과 방법론적 도구를 재정립하는 토대위에서 공간적으로 해석한 다양한 지식(spatially inflected knowledges)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옴. 당대의 핵심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새롭고도 사활이 걸린 관점들(vital perspectives)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시함.
- 40여개국의 844명의 필진이 참여하여 914개 주제를 포괄하고 있음.



분류주제	주요 항목
공간철학 기초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버클리학과, 시카고학과, 사회적 다윈주의, 발전주의, 환경결정론, 구조기능주의, 자연지리와 인문지리, 실증주의 지리학, 계량혁명, 지역과학과 공간과학, 합리적 선택 이론, 지역지리학, 과학적 지식의 사회적 연구, 시간지리학, 복지 지리학</li> <li>· 비판지리학, 아나키스트 지리학, 아방가르드 지리학, 행동주의 지리학, 문화적 전환, 민속방법론적 지리학, 인본주의와 실존주의 지리학, 페미니스트 지리학과 정치경제학, 관념(이상)주의 지리학, 제도주의 지리학, 포스트모던 도시지리의 LA학과, 맑스주의 지리학, 군사지리학, 현상학 및 탈현상학적 지리학, 포스트모던 지리학, 포스트휴머니즘 지리학, 탈구조주의 지리학, 실용주의 지리학, 비재현이론과 지리학, 정신분석학적 지리학, 급진환경론, 급진지리학, 급진정치경제학, 합리적 선택 맑시즘, 상황주의 지리학, 구조주의 지리학, 구조화이론과 구조화주의 지리학, 초현실주의 지리학, 상징적 상호작용론, 행위자연결망이론/네트워크 지리학</li> <li>· 확산, 거리, 경관, 글로벌-로컬, 기억, 이동성, 자연, 장소, 스케일, 공간, 공간-시간, 영역과 영역성, 공간-사회, 타아(Self Other)</li> <li>· 자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 하위주체성(Subalternity), 범주형 자료분석, 복잡계 이론, 담론분석, 감성적 읽, 체화적 읽, 엔트로피 극대화 모델, 페미니스트 방법론, 프랙탈분석, 퍼지논리학, 토대이론, Geographical Masking, Geocomputation, 햅틱(감각)기반지식, 경관인식, 신경망분석, 다성성, 공간자료와 시각화, 구조방정식 모델, 생애과정접근, 공간통계학, 공간-시간모델링, 비판적 공간분석, 계보학적 방법</li> </ul>
지도학과 G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도학과 GIS의 기초항목: 개념, 역사, 측량, 항공사진, 디지털 자료, 전자지도, 지도 인식, 시스템, 지도유형, 계량적 공간사유, 자료조사, 계량혁명, 등</li> <li>· 비판지도학과 비판 GIS, 페미니즘과 지도·GIS, GIS와 사회 및 공공참여</li> <li>· 상업적 지도화, 공간자료 마이닝과 공간적 시각화, 페미니스트 시각화, 사이버스페이스 지도화, 지도화의 철학, 인종주의의 지도, 거버넌스 및 정치와 지도, 지도와 상징</li> </ul>
(국가)발전지 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주의, 식민주의, 내국식민주의, 원조, 채무, 종속과 종속이론, 제국, 근대화이론, 신식민주의, 신자유주의와 발전, 포스트발전주의, 오리엔탈리즘, 문화제국주의, 유럽 중심주의, 지역고유의 지리와 지식</li> <li>· 시민사회, 어린이 노동, locality 논쟁, 이주노동자, 참여, 비정부조직, 빈곤, 생존성, 저항, 사회적 자본, 취약성, 인권정치</li> <li>· 글로벌 상품체인, 정보격차, 수출자유무역지대, 공정무역, 비공식부문, 국제송금, 탈식민주의 도시, 국제무역, 초국적 기업</li> <li>· 삼림남벌, 사막화, 보건과 발전, 발전도상국 질병, 지속가능한 발전, 녹색혁명, 열대 지리, 기근</li> </ul>
경제지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지리학 기본개념: 집적, 입지론, 사업자서비스, 소비, 경쟁, 발전축, 전자상거래, 경제공황, 계량경제지리학, 분공장경제, 비공식경제, 기업, 가공무역지대, 배태성, 포디즘, 유연전문화, 산업지구, 산업단지, 혁신, 정보통신기술, 지식경제, 학습경제, 네트워크, 민영화, 불균등 발전</li> <li>· 자본과 공간, 자본주의와 노동분업, 공간노동분업, 노동지리학, 상품체인, 농촌지역 발전, 접경지역경제, 지구적 생산네트워크와 상품체인(GPN/GCN), FDI, 초국적 기업과 거버넌스, 초국적 인종경제네트워크, 초국적 경제와 노동지리, 소매서비스 지리, 기술과 지역발전, 국제무역</li> <li>· 문화경제, 창조성, 대안경제, 공정무역, 페미니즘과 노동, 페미니스트 정치경제학, 역외금융, 금융지리학, 금융위험과 금융관리, 식량체제와 네트워크, 인종경제, 급진정치경제학, 지역통합</li> </ul>
보건의료 지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고령화와 보건 및 부양, 젠더와 보건, 보건과 발전, 보건의료 접근성, 보건지리학, 보건서비스 재구조화, 주택과 근린지역 및 보건, 사회적 자본과 장소 및 보건</li> <li>· 만성질환, 대안의료, 환경보건, 보건불평등, 지역고유의 보건과 의료, 임신과 출산, 치료조경(Therapeutic Landscapes)</li> <li>· 전염병의 세계화와 확산, 역학적 전이(변천), 개발도상국 질병</li> </ul>

역사지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사회의 전환, 자본주의와 노동분업, 탐험의 역사지리, 봉건제와 봉건사회, 경작 체계와 엔클로저, 도시와 농촌의 역사지리, 제국주의 도시와 지리, 중세역사지리</li> <li>· 환경, 인종과 저항, 페미니즘, 계보학과 가족사, 유산과 정체성, 산업, 지식과 교육, 기억, 이주, 국가주의, 자연, 전쟁, 무역과 통신 등의 역사지리학과 역사지리, 생태적 구술사, 디지털 자료, 거리이름과 도상학, 도시형태학</li> </ul>
자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관리와 농촌지속가능성, 친환경농업과 농촌변화, 녹색혁명, 생태관광</li> <li>· 동식물지리, 생물종다양성과 지도화, 자연자원, 기후변화, 보존과 생태, 삼림남벌, 환경재해와 환경안전, 환경보건, 도시서식처, 습지와 매립</li> <li>· 사회적 자연, 탈식민주의 자연, 젠더와 자연, 문화와 자연, 정치생태학, 환경정의와 환경정책, 환경규제, 환경주의, 자연과 환경의 역사지리, 정원과 원예행위, 토지피복 변동학, 자원과 환경경제학, 쓰레기 관리</li> </ul>
정치지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동주의와 행동주의 지리학, 탈식민주의 지리학, 탈갈등주의 지리학, 비판지정학, 반지정학, 포스트 인종차별주의, 식민주의, 문화정치학, 포스트 코뮤니스트 지리학, 제국과 제국주의 지리학, 지정학과 종교, 전쟁과 군사지리학</li> <li>· 인구고령화와 보건, 시민권과 통치성, 인권, 접경지대, 완충지대, 환경정의와 안전, 민족통일주의(실지회복운동), 국민국가의 공간성, 도시와 신자유주의, 재현의 정치, 세계체제론</li> <li>· 영역과 영역성, 국가이론, 선거지도학, 선거지리학, 권한이양(사무위임), 거버넌스, 통치지도, 기업·재화·교통의 거버넌스, 장소의 정치, 정치적 재현과 대표성, 공공재와 공공정책</li> </ul>
인구지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고령화와 이동성, 디아스포라, 이민과 지역간 인구이동, 농촌인구, 이주의 역사지리, 피난민과 생활터전의 강제적 전치, 주거지 분화, 초국적주의</li> <li>· 센서스 지리학, 인구학, 인구지리학, 출산율, 유전학</li> </ul>
지역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역적 발전론, 불균등 지역발전, 하천유역개발론, 낙후지역발전기금(Cassa per il Mezzogiorno, 이탈리아 남부개발기금), 중심-주변모델, 집중적 분산, 누적적 인과론, 탈국지화, 에지시티, 성장축, 산업지구, 배후지 개발, 지역노동시장, 균형도시(métropole d'équilibre), 신도시, 다중심도시, 항구복합도시, 지역계획과 지역발전모델</li> <li>· 광역도시경제권(City Region), 학습지역, 지역노동시장, 네트워크 지역과 지역적 연결성, 지역생산네트워크, 지역주의와 신지역주의, 지역행위주체, 지역혁신체계, 일상의 지역화, 영역적 생산복합체, 초국적 지역협력기구(Nordplan and Nordregio; 북유럽국가들의 지역발전협력기구)</li> </ul>
농촌지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업과 농촌변동, 농지보존,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경제발전, 역도시화, 소농사회, 농촌빈곤, 농민운동, 농촌서비스와 교통, 농촌관광</li> <li>· 농촌지역의 시민권과 통치성, 농식품네트워크와 대안네트워크, 맑스주의 농식품체제론, gender와 농촌성, gentrification과 농촌, 농촌주거문제와 농촌 홈리스, 세컨드홈, 농촌의 정체성과 타자성, 탈생산주의와 다기능 농업, 농촌성과 탈농촌성</li> </ul>
사회·문화지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화와 이동성, 광장공포증, 생성과 귀속, 신체, 시민권, 시민사회, 세계주의, 문화경제, 문화유물론, 문화정치, 문화와 자연, 문화적 전환, 디아스포라, 차이의 정치, 거주, 담론, 텍스트, 형평성, 축제와 불거리, 아비투스, 혼종성, 정체성과 타자성, 이성애 규범성(Heteronormativity), 토지에 대한 권리, 경관도상학, 언어와 문헌, 근대성, 남성주의, 기억과 기념비, 지명과 도상학, 수행성, 가부장제, 욕아(모성과 부성), 장소감, 사회적 자본과 장소, 초국적성, 가시성, 청년문화, 소리경관(Soundscapes), 상징경관, 감시, 버클리 학파, 감성지리, 도시와 감각중추(Sensorium), 사회계급, Sexuality, 사이버스페이스, 토착성, 토착지식</li> <li>· 연령차별주의, 탈인종차별주의, 인종갈등과 인종주의, 인종경제, 저항의 역사지리, 어린이 노동, 정보격차, 역량강화, 게이와 레즈비언 지리학, 동성애자 지리, 세계화의 역사지리, 홈리스, 정체성의 정치, 문화제국주의, 법률과 법률의 집행, 이민, 빈곤, 공공과 민간의 관계, 공공공간, 정체적 하위계급(Underclass, Subaltern), 복지 지리학, 주거지분화, 여가지리</li> </ul>
교통지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교통, 교통거버넌스, 지역연결성, 교통접근성, 교통과 세계화, 지속가능한 교통, 교통지리와 토지이용, 공공교통, 물류, 도시·농촌 교통, 복합운송체계(Intermodality)</li> <li>· 생태관광, 도시·농촌관광, 일상의 역사와 이동성, 교통과 사회적 배제</li> </ul>

도시지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심지이론, 역도시화, 국제금융중심지, 에지시티, 게토, 도시역사지리, 도시거버넌스, gentrification, 제국주의 도시, 산업도시, 정보도시, 토지지대론, 근린지역, 도시네트워크, 신도시, 도시계획, 도시재생, 주거지분화, 금융차별구역(Redlining), 교외화, 도시관광, 도시하위계급, 도시성장기계, 도시건축, 도시형태학, 도시체제, 수변개발</li> <li>· 반도시화(성), 도시마케팅, 세포자동자(細胞自動子, Cellular Automata), 광역도시경제권, 메가시티, 중국도시화, 이슬람도시화, 방어공간, 산보(책)자(flâneur), 도시속의 젠더, 사적유토피아도시(Privatopias), 뉴어바니즘, 어반빌리지, 탈식민주의 도시, 탈사회주의 도시, 다문화도시, 신자유주의 도시, 상황주의 도시, 세계도시, 이상주의 도시, 도시 공공공간, 도시의 지속가능성</li> </ul>
-------	--

② Joseph P. Stoltzman(ed), 2012, 21st Century Geography: A Reference Handbook, Sage. 920페이지. 총 2권, 6개 분류에 70개 주제

분류주제	주요 항목
자연환경 지리학	지표경관과 지형, 기상학과 미래기후 예측, 기후예측의 응용, 기후변화, 기후의 역사, 지구변화와 지리적 사유, 기후학의 응용, 생물지리학, 수자원과 물관리, 자연식생과 동물
인문지리학	문화지리학, 문화변동과 확산의 사회적 과정과 지리적 패턴 및 접촉지대, 장소애착, 장소인식과 장소감, 정치지리와 국경 및 지방경계, 국가주의, 초국적 주의,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한 지리학적 관점, 지리학과 자연안전, 지리학과 이주분석, 인구학적 차원들, 인구정책 쟁점과 지리학, 베이비 붐 세대의 지리와 자연의 이용, 도시지리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세계도시의 현재와 미래, 도시패턴과 인종적 다양성, 도시와 지역계획, 공공공간의 지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교통, 도시네트워크와 소통 및 기업결절, 참살이의 지리학, 지리학에서 여성과 소수인종, 경제와 사회에 대한 지리학적 관점, 글로벌 소비패턴, 지구적 생산패턴
자연과 사회	보호지역과 자연보전, 토지이용의 정치: 사유재산권과 공권력의 균형, 수자원이용과 보전, 바람과 에너지의 지리학, 세계화와 지리학, 외래종의 지리적 영향, 글로벌 변동의 인간적 차원, 환경의 사회적 구성, 자연위험과 재난, 환경재해, 공중보건과 지리학, 경관과 지리학
지역과 지역관점	전통적 세계지역과 미래 세계지역, 도시지역과 국지화된 식품체계의 21세기적 혁신, 농촌지역과 혁신, 아시아·유럽·아프리카·남미·북미·호주태평양과 초국적 조직
지리정보	원격탐사, 지리정보시스템, 지도학, 현장답사와 교육, 전자자료와 지리학, 지리학과 시각화 정보, 공간적 사유
응용전문 지리학	환경계획과 관리, 여가와 관광 및 스포츠, 지리교육, 지리학과 정부, 전문영역으로서 지리학

### 3) 도시지역계획 분야의 새로운 연구쟁점

① Rachel Weber and Randall Crane(eds), 2012, The Oxford Handbook of Urban Planning, Oxford University Press. 888 pages.

- 도시계획원리와 목표로서 미학, 지속가능성, 정의, 접근성, 보존, 문화적 다양성, 회복성을 들고 있으며 6개 범주에 39개 주제를 다루고 있음.
- 옥스퍼드대학교 출판사의 또 다른 관련 핸드북으로는 Nancy Brooks, Kieran Donaghy, and Gerrit-Jan Knaap(eds), 2011, The Oxford Handbook of Urban Economics and Planning, Oxford University Press(1032 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39개 주제를 다루고 있음.

분류주제	주요 항목
공공재의 공급	집단행동:공공과 특수이해 사이 균형, 도시계획과 규제 및 시장의 도전, 계획에서 제도적 접근의 진화, 계획경험의 다양성과 지구적 계획문화
원칙과 목적	도시설계와 도시계획의 동력이자 목표로서 미학적 관점, 지속가능성, 정의, 접근성, 보전, 문화적 다양성, 회복성
계획형성	계획 형성과정, 계획에서 도시와 사람과 과정, 선한의도에서 비판적 실용주의까지, 정보의 시각화, 도시시스템의 모델링, 계획기준과 법
새로운 전선과 쟁점	예술과 장소와 개발에 대한 관점의 진화, 도시계획과 공중보건의 연관성 회복, 무분별한 도시팽창과 성장관리, 대기품질 개선계획과 환경보전, 기후변동의 국지적 규제, 계획에서 지역경제발전의 역할진화, 계획과 정책도전으로서 주택, 슬럼도시, 공공금융과 도시형태, 양성평등 도시와 계획, 도시재개발 성격의 변화, 토지이용과 통행연구의 새로운 전선
계획의 주체	도시계획과 시민참여, 도시비공식성으로 공간의 생산과 계획의 실천, 시민계획가의 역할과 정치적 변혁, 부동산 개발 산업, 계획의 정치학
좋은계획	계획의 독해: 계획해석의 시각이론, 도시계획과 시민권, 도시계획안의 평가와 좋은 활용

② Andy Pike, Andrés Rodríguez-Pose and John Tomaney, 2011, Handbook of Local and Regional Development, Routledge. 642페이지.

- 40여명의 필진이 참여하여 49개 주제를 다룸. 지역개발 관련 다양한 쟁점들을 포괄하고 있는 편집서.
- 본 핸드북의 목적은 지역발전에 대한 개념적·이론적 지식 및 경험적 지식의 현 상태를 비판적으로 진단·평가하는 것, 선진국 및 저개발국 모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발전 연구들 사이 다학문적 접근과 소통을 촉진하는 것, 지역발전에 대한 사유 및 실무의 정치와 정책에 대해 개입하고 성찰하는 것

분류주제	주요 항목
글로벌과 지역발전	세계화와 지역발전, 영역경쟁, 저개발국의 지역발전연구와 제국 및 탈식민주의
지역발전 원리·가치	지역격차와 평등, 통합(동반)성장은 가능한 목표인가 신기루인가, 녹색국가와 지속가능성 및 구매력, 지역발전에 대한 대안적 접근
지역발전 개념과 이론	가치의 공간적 순환, 노동과 지역발전, 지구적 생산네트워크와 지역발전,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진화주의적 접근, 학습과 지식창출의 지역화, 문화·창조성과 도시개발, 포스트 사회주의와 이행, 인구이동과 통근 및 지역발전관계, 경제지리의 공간성, 사회적 혁신의 공간, 탈발전동맹의 형성
정부와 거버넌스	국가와 정부 및 거버넌스, 정치의 귀환: 권력과 지역정치경제학의 재구성, 영역과 관계성: 공간적 경제거버넌스의 개념화, 제도의 지리와 지역경제발전, 지역발전에서 생태국가적 재구성과 정치, 경쟁도시와 민주주의의 문제, 지역발전의 정치학, 공간계획과 영역발전 정책
지역발전 정책	내생적 지역발전 정책, 영역경쟁과 지역경제발전, 금융과 지역발전, 녹색주의 꿈, 소기업과 지역발전, 초국적 기업과 지역발전, 혁신네트워크와 지역발전정책, 대학과 지역발전, 교통네트워크와 물류혁명 및 지역발전, 이민과 지역발전 및 불균등발전, 신자유주의 도시화, 양성평등문제와 이주 및 사회공간적 전환
글로벌 관점	아프리카에서 지역발전의 경험, 세계화와 도시화 및 분산, 경제위기와 지역발전, 지역발전에 대한 북미 관점, 지역발전금융의 분류와 지역적 정의
성찰과 미래전망	지역발전론의 언어, 지역발전 정책의 평가, 새로운 지역거버넌스와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현재의 좌파 지역발전전략, 지역발전에 대한 성찰과 전망

#### 4) 주택분야의 새로운 연구쟁점

##### ① Smith, Susan, 2012,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Housing and Home, Elsevier. 총 3862페이지

- 경제학, 금융, 심리학, 사회정책, 인류학, 지리학, 법학, 건축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의 전문 학자들이 참여하여 주택분야에 대해 처음으로 첨단 주제를 포함하여 국제적인 참고도서를 만든 역작임. 편집위원으로 20여명, 기고자 350여명의 세계적 수준의 학자가 참여하여 5년 동안 작업하였으며 2백만 단어의 방대한 분량임.
- 총 7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제는 500여개에 이르며, 7개의 기본 주제로 분류하고 있음. 편집방식이 다중구조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문분야(주택경제학, 주택법, 주택과 심리, 주택사회학, 주택과 건강, 주택의 정치 등), 세계지역(유럽, 호주, 북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 주제(주택금융, 주택정책, 주택관리 등), 주거유형(자가점유, 사회임대, 민간임대, 협동조합주택, 자가건축 등), 개념(주택시장, 가격기구, 주택소요, 주택소비 등), 이론(주택과 거시경제, 주택시장의 미시구조, 사회이론과 주택 등), 방법론(생애과정접근, 행동경제학, 특성가격함수, 미시사회학, 등), 실무(주택시장개입, 계획, 소요평가, 가격지수, 조세 등) 등 다양한 분류에 따라 연구 성과를 살펴볼 수 있음.

분류주제	주요 항목
접근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 및 비용편익분석, 오스트리아 경제학과, 행동경제학, 비교주택연구접근, 주택인구학, 주택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계량경제학 모델, 필터링, 게임이론, 주택가격지수 작성방법론, 주택가격과 생활의 질, 근린지역효과, 주택시장의 신고전파모델, 신도시경제학과 주거입지, 신경망분석, 계량주의 접근, 주거지분화, 소지역공간통계, 공간경제학, 체계이론, 복지국가와 주택</li> <li>· 행위자연결망 이론, 복잡계, 주택지식의 구성주의적 접근, 비판적 리얼리즘, 주택과 공간의 문화분석, 민주주의와 다중거버넌스 접근, 차이, 담론분석, 민속학적 방법론, 진화주의 경제학, 푸코주의 분석, 주택계급과 소비균열, 신제도경제학, 생애과정접근, 경로의존성, 재산권접근, 조절이론, 사회계급과 주택, 사회적 구성주의, 사회법적 접근, 구조와 주제, 텍스트언어학적 분석</li> </ul>
경제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Covered Bond), 신용과생상품, 금융규제완화, 주택순자산인출, 주택금융, 주택보조금, 이슬람 주택금융, 주택의 미시금융, 주택담보금융시장, 모기지장기능, 모기지시장 차별, 모기지보험, 주택지분대출, 모기지선택과 행태금융 및 고전경제학, 서브프라임 모기지, 모기지채무불이행, 모기지장과 거시적 불안정성, 사회주택금융, 부동산투자신탁회사, 주거용부동산과생상품</li> <li>· 주거선택의 경제학, 분단주택시장, 사회주택의 경제학, 자가소유의 편익, 주택위험의 헤징, 주택가격지수, 주택과 거시경제학, 주택소유와 포트폴리오, 주택수요, 주택의 부와 분포 및 소비·생애주기, 주택시장 위험, 주택시장의 가격결정요인, 도시경제학의 시뮬레이션모델, 주택의 공간불일치, 주택하위시장, 주택공급탄력성, 조세와 보조금, 주택시장의 거래비용</li> </ul>
주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방기, 적응가능주택, 다중주거와 다주택소유, 건축방법, 철거, 인종과 주택, 강제퇴거, gender와 공간, 폐쇄공동체, gentrification과 근린지역 변화, 계도, 수선유지보수, 근대적 건축방법, 근린지역설계와 계획, 주거지분화, 장소애착, 농촌지역사회와 주택, 세컨드 홈, 빈민촌, 사회적 공간과 도시정책, 임시주거, 빈집발생의 연쇄성, 전통민가(토속주거)</li> <li>· 에너지절약과 건축규제, 기후변화, 지역에너지시스템, 건축과 철거쓰레기,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방어공간, 생태커뮤니티, 생태발자국, 생태적 재구성, 환경위험, 연료빈곤, 건강과 주택, 건강위험, 가정쓰레기 재활용, 주택과 지속가능한 주택, 주택개발업자와 지속가능성, 주택동학의 환경적 측면, 주택병리학, 회복(치유)적 주거환경, 지속가능한 생활양식과 재생 및 도시개발</li> </ul>

주거와 홈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의 의미, 고령주택의 의미, 주택의 의미와 gender, 주거의 인류학적 관점, 어린이와 육아, 가정폭력, 주거감성, 기술과 근대주택, 가정성(가정생활), 생활터전의 파괴, 페미니스트 주거론, 주거의 양성분화, 고층주거, 돌봄·종교·상속재산·투자수단·레저공간·작업장·부불가사노동으로서 주거, 주거환경과 패션 및 사회적 지위, 이상주택, 각 지역의 주택문화, 장애와 주거경험, 주거와 기억 및 향수, 주거의 성격, 이주, 주택과 존재론적 안정성, 주거의 철학적 관점, 주택과 재현, 무단점유, 교외주택, 주택과 기술 및 감시</li> <li>· 홈리스의 기본 개념, 홈리스의 비용분석, 홈리스에 대한 범죄학적 관점, 홈리스의 경제학적 관점, 주거와 홈리스의 민속지적 접근, 페미니스트 홈리스론, 감춰진 홈리스, 홈리스 가족, 홈리스 예방정책, 권리기반 홈리스 정책, 홈리스와 주거우선주의 접근, 홈리스와 계단모델, 홈리스 인구학, 농촌 홈리스와 국제적 관점, 홈리스와 재현, 홈리스의 사회심리학</li> </ul>
주택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제도, 지역사회 기반조직, 정부지원기업, 가구와 가족, 공증인과 법률전문가, 각국의 계획제도, 복지기구와 보조정책</li> <li>· 주택패러다임, 인권과 주택, 주거권, 토지권, 갈등이후 주택의 원상회복, 주택정책 제도, 적정주거전략, 각국의 사회주택, 서브프라임과 약탈적 대출, 시민사회와 비공식 주거지, 조합주의 주택, 임차인·자가소유 협동조합주택회사, 저소득가구 수요보조금, 인종과 주택조직, 정부모기지보장제도, 정부·공공대출제도, 포스트사회주의국가의 주택조합, 각국의 주택건설산업, 주택시장행위주체와 하위주택시장, 주택개발업자, 각국의 주택금융제도, 비공식 주택, 주택공급제도, 주택재개발제도, 토지소유자, 주택전문가조직, 토지등기제도, 모기지대출업자와 금융, 주택과 근린지역 개선, 뉴어바니즘과 성장관리운동, 고령자 주택제도, 각국의 민간임대, 각국의 민간부문 주택관리, 공공-민간 주택파트너십, 이슬람사회의 점유안정, 제도로서 점유형태, 여성과 주택조직</li> </ul>
주택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접근과 적정성: 소유자조세지원·주택구입권·주택수당·바우처·모기지보증·임대료규제, 주택시장 선택과 정부개입, 계약형 저축제도, 임대료지원제도, 생애최초주택구입보조금, 가압류금지정책, 미국의 사회적 약자 주거지원 정책, 주택금융, 주택정책 경향, 주거기준, 주택보조금과 노동인센티브, 주택신탁펀드, 핵심노동자 주택정책, 저소득층 주거조세지원, 모기지 이자율 규제, 주택금융차별구역대책</li> <li>· 민간임대시장의 점유안정화 법제, 지분공유주택, 통화정책과 주택의 부효과, 퇴락지구개발과 주택공급, 토지개발세, 주택시장분단, 에너지소비와 주택도시개발정책, 배제적 용도지역제, 적정주거 공급과 계층혼합용도지역제, 주택과 노동시장, 주택과 근린지역 품질(주택개량보조금, 도시재생), 주택건설 산업과 경쟁 및 규제, 주택 거버넌스, 주택정책과 재생, 주택공급과 성장관리정책, 개발영향부담금, 이주자 주택정책, 주거사다리(매개형 주택점유형태), 지방정부 재산세, 주거지 계층혼합정책, 전환기 경제체제의 주거선택정책, 주택의 환경효율성 정책, 사회주택 공급확대정책, 사회주택의 분양정책, 사회주택 임대료 정책, 토지권 보호, 사회주택과 민간금융 활용정책</li> </ul>
주거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기반 복지, 자산기반복지에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집단적 소유, 장애인과 주거기능 강화, 가압류의 취약성, 주거복지 취약인구, 저개발국의 주거조직과 생존, 주택과 국가, 주거보조와 복지, 이민자와 주택, 이주와 주택 및 인구이동, 이주와 도시생활, 주택담보대출 채무불이행과 복지, 고령자 복지, 공공임대주택 분양과 복지, 권리와 시민권 및 거처, 도시권, 강제이주 거처, 무허가정착지와 슬럼철거, 사회주택정책수단, 사회정의, 자조주택과 비공식 주거 및 택지개발(남미, 선진국)</li> <li>· 폐쇄형 공동체, 저개발국의 gender와 주택, gentrification과 복지, 건강과 복지 및 주택, 주택의 정치학, 재난이후 주택재건, 주거지분화와 교육, 사회적 배제와 주택, 사회운동과 주택, 도시화와 빈민주거</li> </ul>

## 4. 한국 공간 환경 연구의 새로운 전선 형성을 위해

우리는 현실과 미래에 대해 주체적으로 쟁점을 발굴하여 이론화 또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성찰할 시기이다. 이러한 소임을 자부했던 「한국공간환경학회」가 창립 30여년이 다가오는 것을 생각할 때, 성찰을 시작하는 시점은 이미 한참 지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세계사적 변동을 고려하는 한국적 공간 환경 지식의 체계화라는 다소 무거운 과제인 셈이다.

시공간적으로 제한되지 않은 지식과 행동이 있을 수 있을까? 긴 인류와 지구역사에서 모든 역사와 공간을 관통하는 보편이론이나 관념을 생산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역사유물론의 과제라면 공간 환경 관련 지식의 생산과 실천전략에서 시공간적 구체성·특수성을 찾고자 하는 것(not temporally and spatially unbounded truths) 또한 우리의 과제인 셈이다. 현시대에 구체적인 것으로는 ‘불멸의 자본주의’ 관념이 아니라 시공간적 구체성·특수성으로서 ‘자본주의의 한계’를 규정하는 일련의 작업도 마찬가지이다. 역설적으로 유일한 보편적 관념은 ‘모든 행위와 지식은 시공간적 제한성’을 갖는다는 것일지도 모른다.

지식의 체계화에 앞서 새로운 쟁점의 발굴과 재해석과 지배적 담론화는 중요한 학술적 실천 전략이기도 하다. 통상 안정화된 권력체제는 은폐하고자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거나 드러내더라도 국지화시키고자 하며, 이미 기존 권력관계에 맞게 짜여 있는 시각의 변경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사회적 양극화 논의는 이를 잘 보여준다. 시공간적 당면성(현시대성), 세계성, 근본성, 그리고 필터링 장치로서 한국적 현실성을 중심으로 한국적 공간 환경 지식체계 구축의 판단기준으로 삼아 다양한 쟁점가운데 교차지점에 해당하는 쟁점을 선별한 다음,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쟁점구도, 향후 전개방향이나 대응방법을 검토하면, 아쉬운 대로 비판적 공간환경 지식의 체계화와 더불어 실천적 대안의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을 수 있을 것이다.

### 1) 공간 환경 관련 철학과 개념

- ① **메타이론 또는 철학의 다양화:** 페미니즘, 포스트모더니즘, 탈구조주의, 탈식민주의, 민속학적 방법론, 담론분석, 비판적 리얼리즘, 생애과정접근, 행동경제학, 정신분석학, 행위자 연결망이론, 진화주의 경제론, 신제도주의, 사회구성주의, 조절이론, 합리적 선택망시즘, 상황주의(situationism), 상황이론(contingency theory), 복잡계이론, 신경망이론 등
- ② **공간 환경 관련 기본개념의 재해석과 발굴:** 장소, 영역성, 스케일, 경계, 네트워크, 흐름의 공간, 공간생산, 위상공간, 유비쿼터스공간, 경관, 도상학, 토착성, 이동성, 이주, 기억, 햅틱(haptic), 텍스트성, gender, 정체성, 차이, 인권과 권리, 디아스포라, 시민권, 통치성, 신체, 탈취, 생성과 귀속, 혼종성, 아비투스, 행위주체, 산보(책)자(flâneur), 감시, 위험사회 등

## 2) 공간 환경 관련 쟁점의 발굴과 재해석

- ① **공간정보의 처리와 생산:** 비판 GIS와 지도학, 공간통계 생산의 계급성, 전자자료 사회와 공간통계 및 시각화, GIS와 사회 및 공공참여, 공간적 시각화와 gender 및 인종주의, 공간적 시각화의 정치학과 상징, 빅데이터와 공간정보의 상품화 등
- ② **경제공간의 재구성:** 가치의 공간적 순환, 글로벌 상품체인과 생산네트워크, 초국적 경제와 국제이주 및 노동지리, 접경지역경제, 초국적주의, 초국적 인종경제 네트워크, 공정무역과 대안경제, 글로벌 식량체제와 네트워크 및 대안네트워크, 글로벌 지역통합, 공간시장과 자본시장의 통합, 공간생산금융의 초국적화, 글로벌 금융위기와 공간적 취약성, 지역발전금융의 분류와 지역적 정의, 지구적 공간교류의 사이클과 세계화의 역사지리 등
- ③ **정치공간과 공간의 정치성:** 행동주의 지리학, 탈식민주의·탈갈등주의·탈인종주의 지리학, 비판지정학과 반지정학, 문화정치학, 지정학과 종교 및 군사지리학, 국가주의 영역성, 선거지리학, 접경·완충공간의 정치경제학, 재현공간·공간재현의 정치, 공간에서 시민권과 통치성 및 통치기술, 센서스 지리학, 실지회복운동, 하부구조 공급의 거버넌스, 피난민과 생활터전의 강제적 전치, 일상의 지역화와 지배구조 및 공간적 뺏, 차이와 차별의 공간정치, 권력과 지역정치경제학의 재구성, 권리의 제도화와 세습권리의 다양화 및 공간의 세습적 차별 등
- ④ **사회문화공간:** 장소역사성의 구성과 재생산, 식민주의 지리학과 신식민주의 공간담론의 생산, 문화변동과 확산의 사회적 과정과 지리적 패턴, 접촉의 공간, 광장공포증, 문화경제와 문화유물론, 담론, 이성애규범성과 동성애지리, 상징경관, 축제와 불거리, 비판장소 마케팅, 소리경관, 도시의 감각성, 거주의 의미, 사회적 자본과 장소, 저항의 역사지리, 하위계급과 하위주체성, 주거지분화, 일상의 역사와 이동성, 교통통신공간의 거버넌스와 사회적 배제, 금융차별구역의 도시사회지리, 방어공간, 폐쇄공동체, 이민과 지역발전 및 불균등발전 등
- ⑤ **자연과 환경:** 사회적 자연과 환경의 사회적 구성, 공간의 포섭과 자연의 포섭, 환경정의, 환경지정학, 에너지 지정학, 지역에너지자립, 자연과 환경의 역사지리, 정치생태학, 환경정의, 삼림남벌, 사막화, 기후의 역사와 기후변화, 기후변화체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환경자원과 환경관리, 환경재해와 안전, 토지피복변동학, 쓰레기 발생·관리의 공간체계, 생태커뮤니티, 환경설계와 범죄예방, 건강도시, 공간의 생태적 재구성, 탄소배출권 거래와 환경주의 공간생산론 등
- ⑥ **보건의료·복지·여가공간:** 최저생활기준과 공간적 복지체제, 인구고령화와 부양 그리고 세대문제, 연령차별주의, 권리기반 도시지역개발, 자산기반복지, 집단적 소유, 사회적 약자와 생존공간, 건강과 주택 및 근린지역, 치료조경, 세계화와 질병 확산의 사회적 과정, 보건의료공간의 불평등, 생태관광, 여가와 관광 및 스포츠의 지리, 여가공간의 대량상품화와 차별화 등
- ⑦ **토지주택:** 주택철학의 구성, 재산권이론과 대안적 재산권, 주택의 다중적 의미, 주택금융



위기와 약탈적 대출 및 삶의 위기, 인권으로서 토지권, 주거권, 도시재구조화와 부동산  
방기, 토지주택은행, 생애과정과 주택, 주택금융과 파생상품, 사회주택금융, 하위주택시장  
과 주택시장 분단, 적정주거와 적응가능주택,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와 철거 및 강제퇴거,  
생활양식변화와 다중주거, 건강과 주택, 지속가능한 주택, 페미니스트 주거론과 주택 및  
gender, 사회적 약자와 주거지원, 사회주택과 민간임대, 주택과 기술 및 감시, 홈리스와  
재현, 비공식주택, 점유안정과 주택보유형태, 개발이익의 환수 등

⑧ **국가발전론 및 지역개발:** 포스트발전주의, 지리와 지식에서 토착성, 탈식민주의 도시, 신  
제국주의 도시, 초국적 지역협력기금 및 기구, 신중상주의와 신지역주의, 신빈곤, 지역발  
전론의 제국주의적 성격, 지역격차와 공간적 평등권, 탈발전동맹, 영역적 발전론, 내생적  
발전론, 네트워크 지역발전론, 지구적 생산네트워크와 지역발전, 균형도시, 광역도시경제  
권, 초국적 기업과 지역발전, 소기업과 지역발전, 친환경농업과 탈생산주의 및 농촌변동,  
농촌성과 탈농촌성, 소농농촌의 해체 등

⑨ **도시계획:** 계획과 시장의 도전, 계획의 다양성과 지구적 계획문화, 계획의 원칙과 목표의  
정치성, 이상주의 도시와 유토피아 도시계획, 도시팽창과 성장관리, 대안적 도시발전론,  
도시네트워크, 도시재생, 양성평등과 도시계획, 도시계획과 민주주의 및 시민참여, 도시  
에 대한 권리, 도시계획과 인권, 도시공간의 공공성, 도시계획에서 사유재산권과 공권력,  
신자유주의와 도시계획, 도시경쟁과 민주주의적 통치성, 새로운 지역거버넌스와 신자유  
주의 헤게모니, 도시계획의 미학과 장소성, 법제지리학, 법제도의 공간성과 지역경제발  
전, 용도지역제의 재구성 등

**우리는 성을 쌓기보다는 길을 내야 발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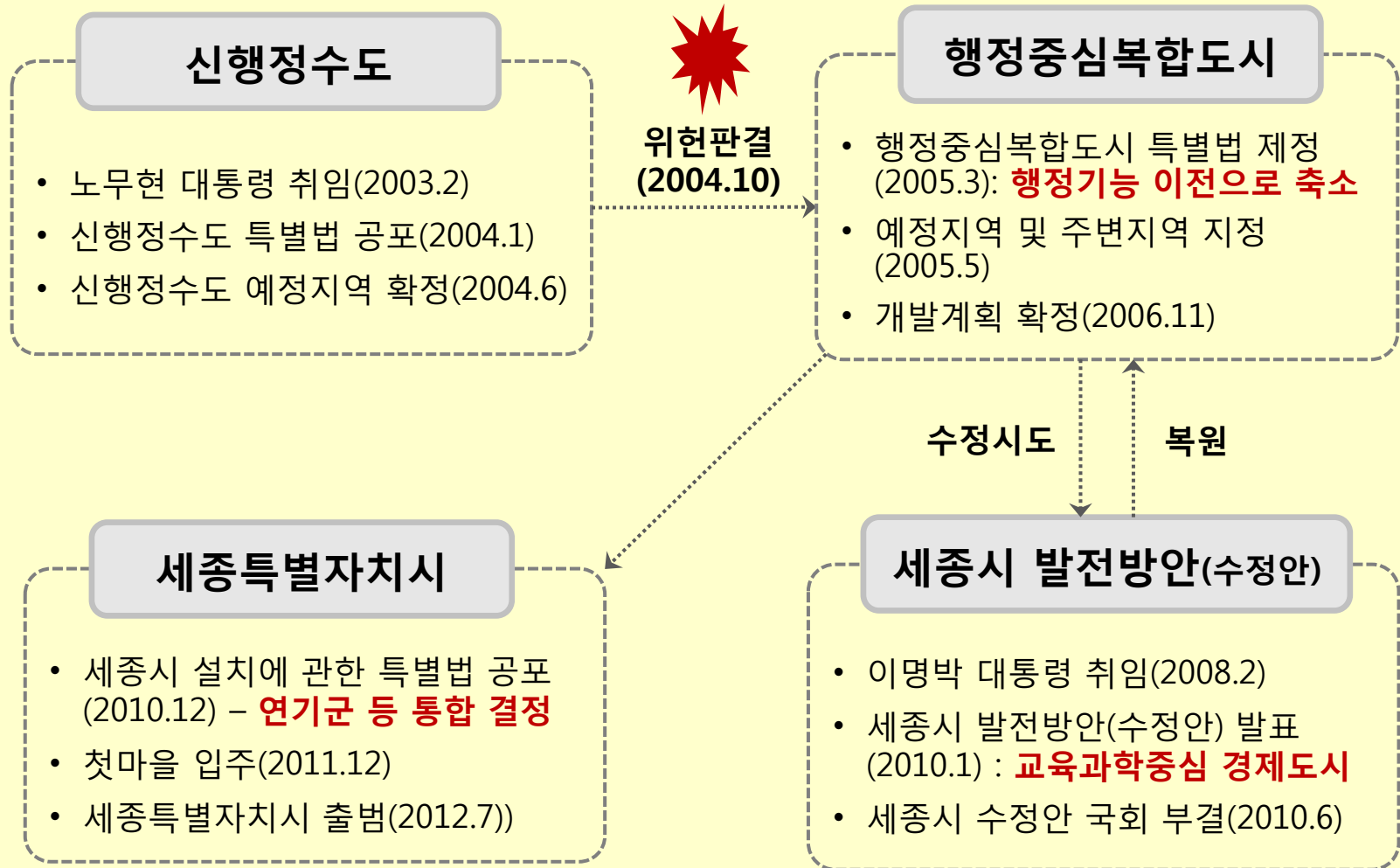
# 세종시 개발계획의 성립과 전개 : 신행정수도에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박세훈

국토연구원

- 세종시 계획의 역사
- 시기별 계획의 배경과 특징 : 신행정수도에서 세종시 수정안까지
- 행정중심복합도시 디자인의 특징
- 개발진행과정 상의 몇 가지 문제들
- 세종시의 현안과 과제

# 세종시 계획의 역사



# 신행정수도<sup>[1]</sup> : 정책의 출발

---

- **노무현 정부가 출범(2003.2)하면서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구조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화를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하고 그 핵심·선도사업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 동시 추진
  -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의 도구였으며, 혁신도시 건설 등 기타 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함으로써 정치적 동력을 확보
- **신행정수도 주요 내용**
  - 인구 30~50만명 규모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심의 다기능 복합도시
  - 청와대, 국회, 행정부처 등 국가 중추기능의 일괄 이전 추진
  - 쾌적한 친환경도시, 인간중심도시, 문화정보도시를 목표로 함

- 세종시 계획의 역사
- 시기별 계획의 배경과 특징 : 신행정수도에서 세종시 수정안까지
- 행정중심복합도시 디자인의 특징
- 개발진행과정 상의 몇 가지 문제들
- 세종시의 현안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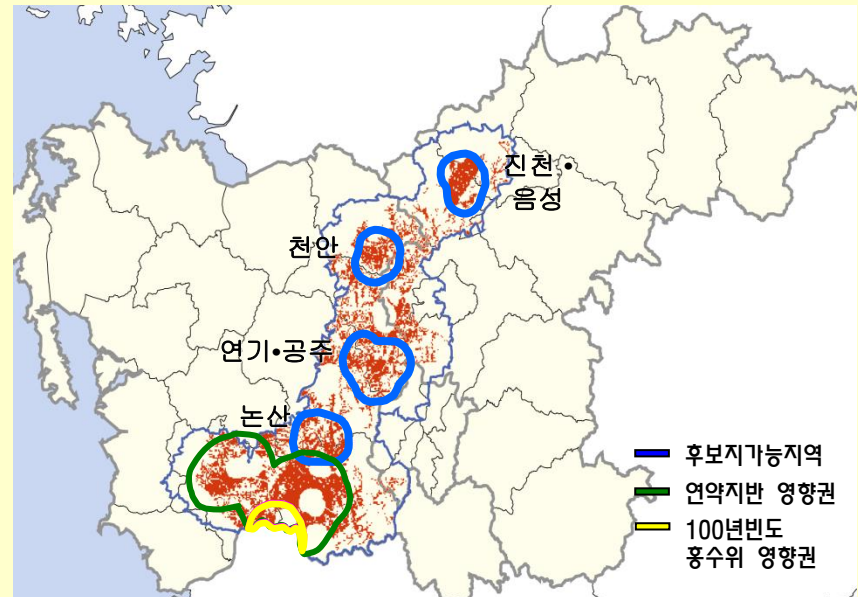
# 신행정수도[2] : 추진기구의 정비와 입지선정

## ● 추진기구의 정비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공포(2004.1)
- 대통령 직속으로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의결기구)와 추진단(집행기구)을 설치(2004.6)

## ● 후보지 입지선정

-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4개 후보지역을 선정(충청도 4개 지역 : 진천·음성, 천안, 연기·공주, 공주·논산)하였으며, 평가결과 **연기·공주 지역**을 최종입지로 선정 (2004.8)
- 후보지역 선정은 추진단에서 주관하였으며, 후보지 평가는 후보지 평가위원회에서 주관



# 신행정수도[3] : 사회갈등과 위헌판결

---

- 신행정수도 건설반대운동

-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를 시작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자치단체장들의 반대 입장 표명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규 경기도지사 중심)
-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도 반대입장에 가세하면서 행정비효율론, 통일수도론, 국민투표론 등 대두
- 신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수도권과 지방 간의 갈등** 양상

-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판결 (2004.10)

- 한 시민단체에 의해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위헌확인을 청구하는 헌법소원 제출
- 판결 요지 :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불문의 관습헌법 사항을 헌법개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권을 침해**



# 행정중심복합도시<sup>[1]</sup> : 대안의 마련

---

-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신행정수도의 후속대책 마련

- 당시 국가균형발전의 본래 정책취지를 살리면서도 위헌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는 후속대안 마련
- 대안 선택 5대 원칙 : ① 헌재결정 반영, ② 균형발전 선도, ③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자족성 확보, ④ 연기·공주지역 활용, ⑤ 여타 균형발전시책 병행 추진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2005.3)

- 연기·공주지역에 예정지역을 지정
- **정부부처 12부 4처 2청**(통일, 외교, 법무, 국방 등 제외)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이전**
- 국가예산지출 상한을 8조 5천억원으로 제한
- 사업추진 전담조직으로 차관급의 건설청 설치

# 행정중심복합도시[2] : 건설이념 및 추진체계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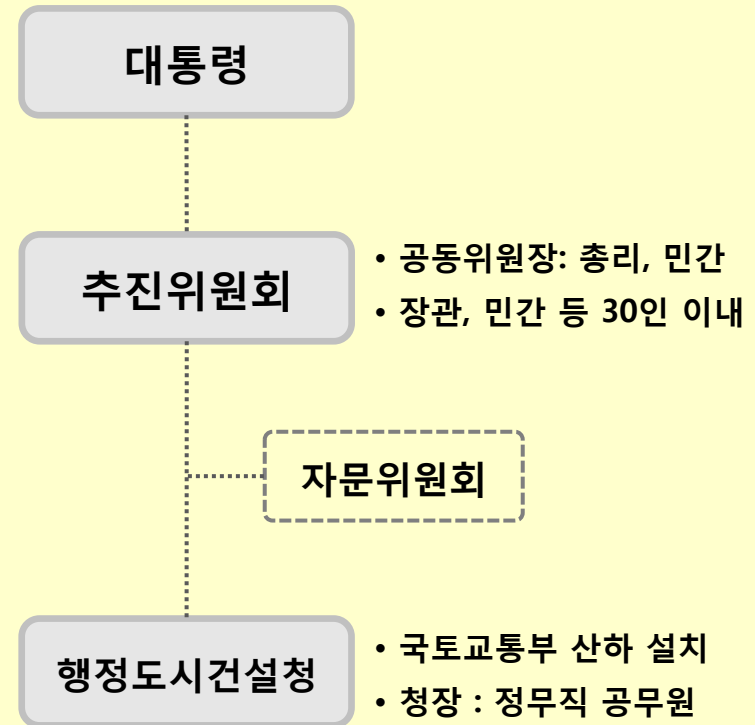
## ● 도시건설의 목적

-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 도시수준을 향상시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모범도시** 건설

## ● 도시건설의 이념: 더불어 잘 사는 '공생의 도시'

-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조화로운 민주도시, 시민중심의 열린 도시, 환경이 중요시되는 지속가능 도시 건설
- '잘' 살 수 있도록 편리한 선진도시,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도시, 재해에 안전한 도시로 건설

### <추진조직 재구성>



# 행정중심복합도시(3) : 예정 · 주변지역 지정



## ● 도시건설의 예정지역 : 73km<sup>2</sup> (2,210만평)

- 충남 연기·공주의 5개면 33개리
- 중심지에서 4~6km 범위에서 산악·하천 등 지형이나 개발제한
- 구역경계 등을 기준으로 설정

## ● 주변지역 : 224km<sup>2</sup> (6,780만평)

- 충남 연기·공주 및 충북 청원의 9개면 74개리
- 예정지역 경계에서 폭 4~5km 범위 행정구역경계 및 조치원 도시지역 경계를 기준

# 행정중심복합도시[4] : 인구계획

- 도시자족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 인구 50만명으로 계획
- 정책적 유입인구(15만)와 자족적 유발인구(35만)로 구성
  - \* 자족적 도시기능 : 첨단지식기반, 대학, 의료복지 등

연 도	인구 (천인)					
	정책적 유입인구			자족적 유발인구		계
	첫마을	행정 공공	서비스	자족적 도시기능	서비스	
~2011	20					20
2012~2015		30	60	10	30	130
2016~2020		10	30	30	80	150
2021~2030				60	140	200
계	150			350		500
	500					

# 행정중심복합도시(5) : 재정계획

## ● 정부 부담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8.5조원**으로 계획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광역교통기반시설, 특수시설	3.15	-	-	3.15
공공건축	2.06	0.35	0.37	2.78
용지비	2.57			2.57

## ● 사업시행자 부담

- 용지보상과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등의 부담으로 약 13.2조원으로 계획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용지보상	4.90	-	-	4.90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3.30	2.50	2.50	8.30

# 세종시 발전방안<sup>(1)</sup> : 재논의 시작

---

- **이명박 정부 출범에 따라 행정도시 재논의 시작**

- “행정수도는 수도분할로 통치의 근본을 쪼개 수도이전보다 더 나쁘다.”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당시 발언)
- 총리실 산하에 ‘세종시 민간합동위원회’를 두고(2009.11) 세종시를 과학 및 기업도시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2010.1)**

- 수정안의 이유 : **국정비효율과 자족성 부족**
- 원안 추진시 인구 50만의 자족도시 건설이 불가능하며, 정부부처간 분리된 거리로 인하여 국정비효율 초래, 국가경쟁력 약화
-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를 **인구 50만명의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로 건설’할 것이라며, 발전방안은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자 새로운 내일의 토대를 다지는 시대적 과업”이라고 설명

# 세종시 발전방안<sup>[2]</sup> :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 <원안과 수정안의 비교>

분류	항 목	원 안	발전방안
개요	도시성격	행정중심복합도시	<b>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b>
	사업기간	'30년까지 단계적 개발	'20년까지 집중개발
	목표인구	50만	50만(예정지역40만+주변지역10만)
토지 이용	주요용도	아파트 위주로 개발	산업대학연구기능 대폭 보강
	자족용지 비율	6.7%	20.7%
인구	총고용(일자리)	8.4만명	<b>24.6만명</b> (원안의 약3배)
	거점고용	2.9만명	8.8만명
	유발고용	5.5만명	15.8만명
	총 인구	17만명	50만명
현재까지 확정된 투자 유치면적(고용인구)		258만m <sup>2</sup> (16,770명) * 대학(원)생 3,165명 별도	901만m <sup>2</sup> (36,244명) * 대학(원)생 7,100명 별도
도시교통	중심순환도로	'11 ~ '15년	'11 ~ '13년까지 2년 단축
	외곽순환도로	'11 ~ '30년	'11 ~ '15년까지 15년 단축
광역교통	주요광역도로	'11년 ~ '17년 이후(미정)	'11 ~ '15년까지 2년 이상 단축
투자규모		▶국고 8.5조원 한도	▶국고 8.5조원 한도 + 과학벨트 3.5조원 ▶민간투자 4.5조원

# 세종시 발전방안<sup>(3)</sup> : 수정안의 좌절

- 세종시 발전방안 국회 부결 (2010.6)

- 야당인 민주당과 여당내 핵심계파인 박근혜 계파의 반대로 세종시 수정안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됨
- 이로서 세종시 계획은 원안으로 되돌아 감



<폐기된 세종시  
발전방안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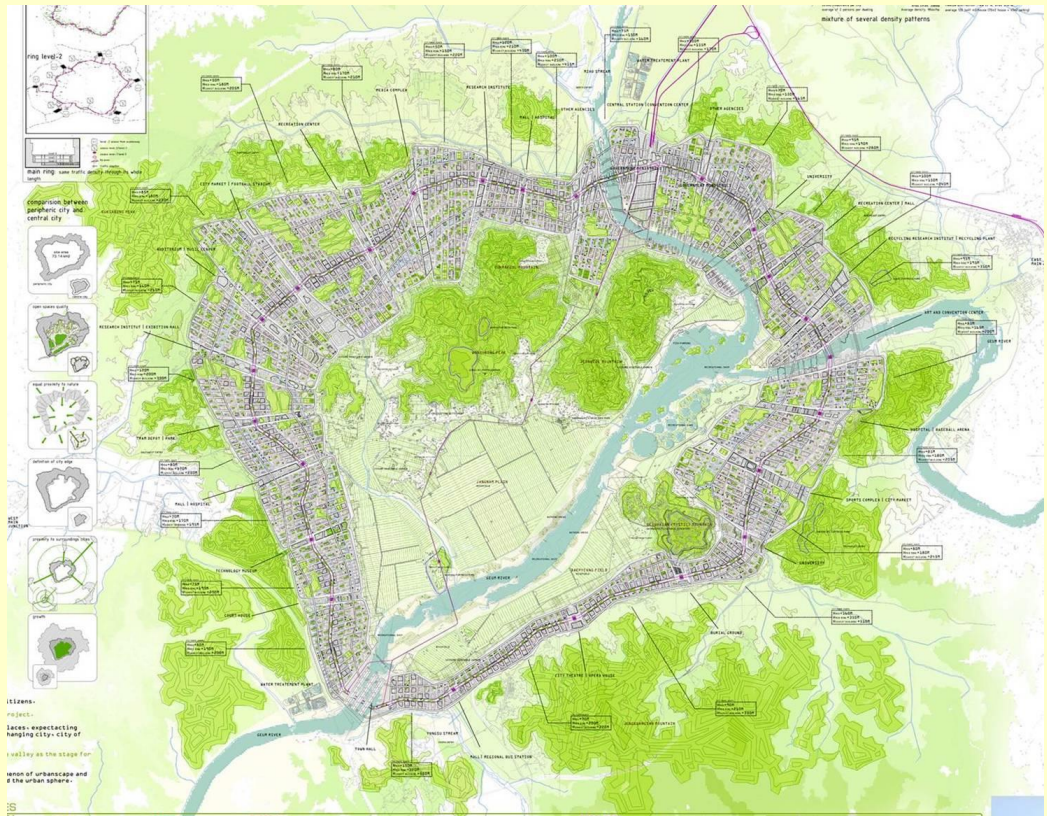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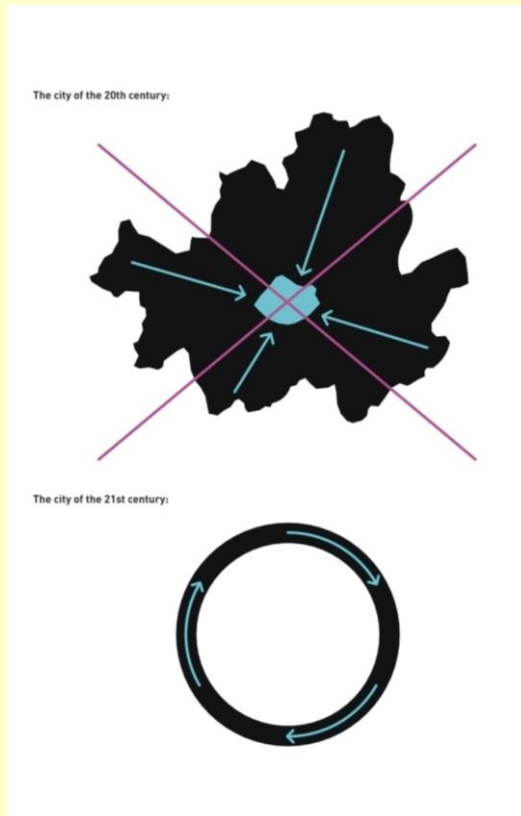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출범(2012.7)
  - 세종시 건설로 해체 위기에 있던 연기군 잔여지역 세종시 편입 결정
  -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광역자치단체**로 특수지위 부여
  - 세종특별자치시장 선출(2012.4)
  - 세종시 정부가 출범했지만 세종시 건설 완료 시 까지 **세종시 예정지역의 도시건설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관할**
  - 2012년 말부터 총리실 등 부처 이전 시작



# 도시개념

- 도시개념 국제공모를 통해 기본개념 마련 (2005)



*The City of the thousand Cities (Perea, Spain)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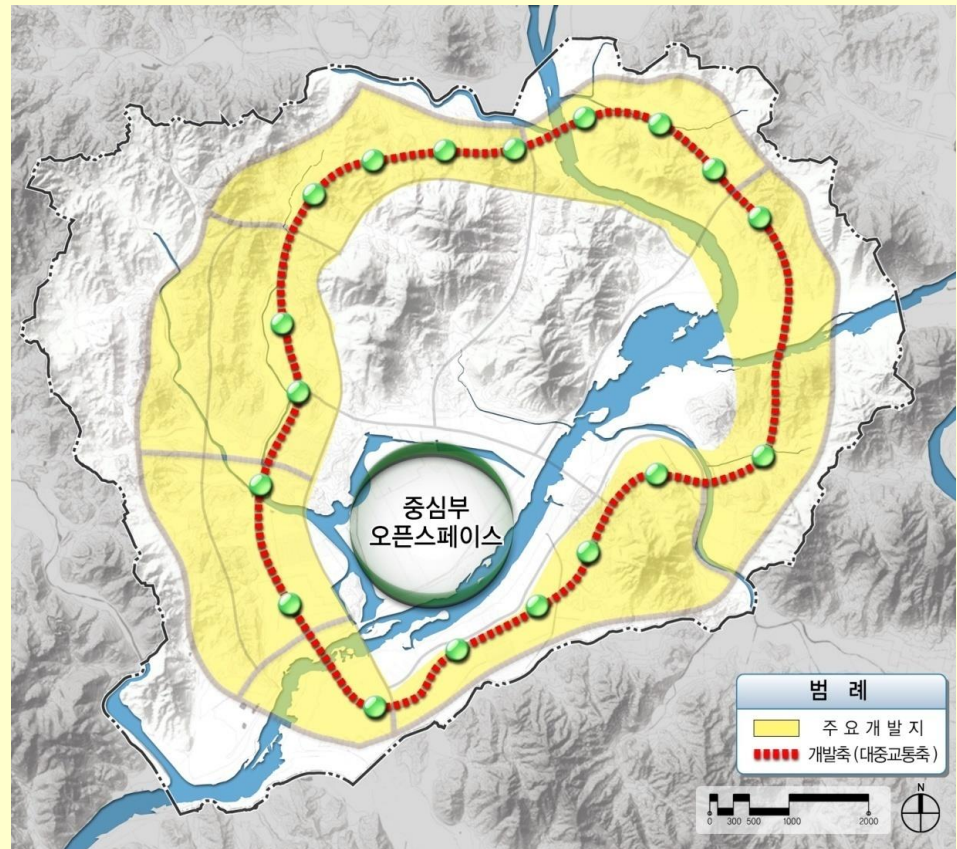
- 세종시 계획의 역사
- 시기별 계획의 배경과 특징 : 신행정수도에서 세종시 수정안까지
- **행정중심복합도시 디자인의 특징**
- 개발진행과정 상의 몇 가지 문제들
- 세종시의 현안과 과제



# 도시공간구조

## ● 균형, 분산, 분권의 이념에 따라 도시의 주요기능을 분산 배치

- 국가균형발전과 분권화 시대를 상징
- 중앙부는 시민들이 공유하고 휴식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로 조성
- 환상형 도시골격을 따라 대중교통 수단 순환



# 도시기능 배치

- 균형발전을 구현할 수 있는 환상형(Ring) 도시공간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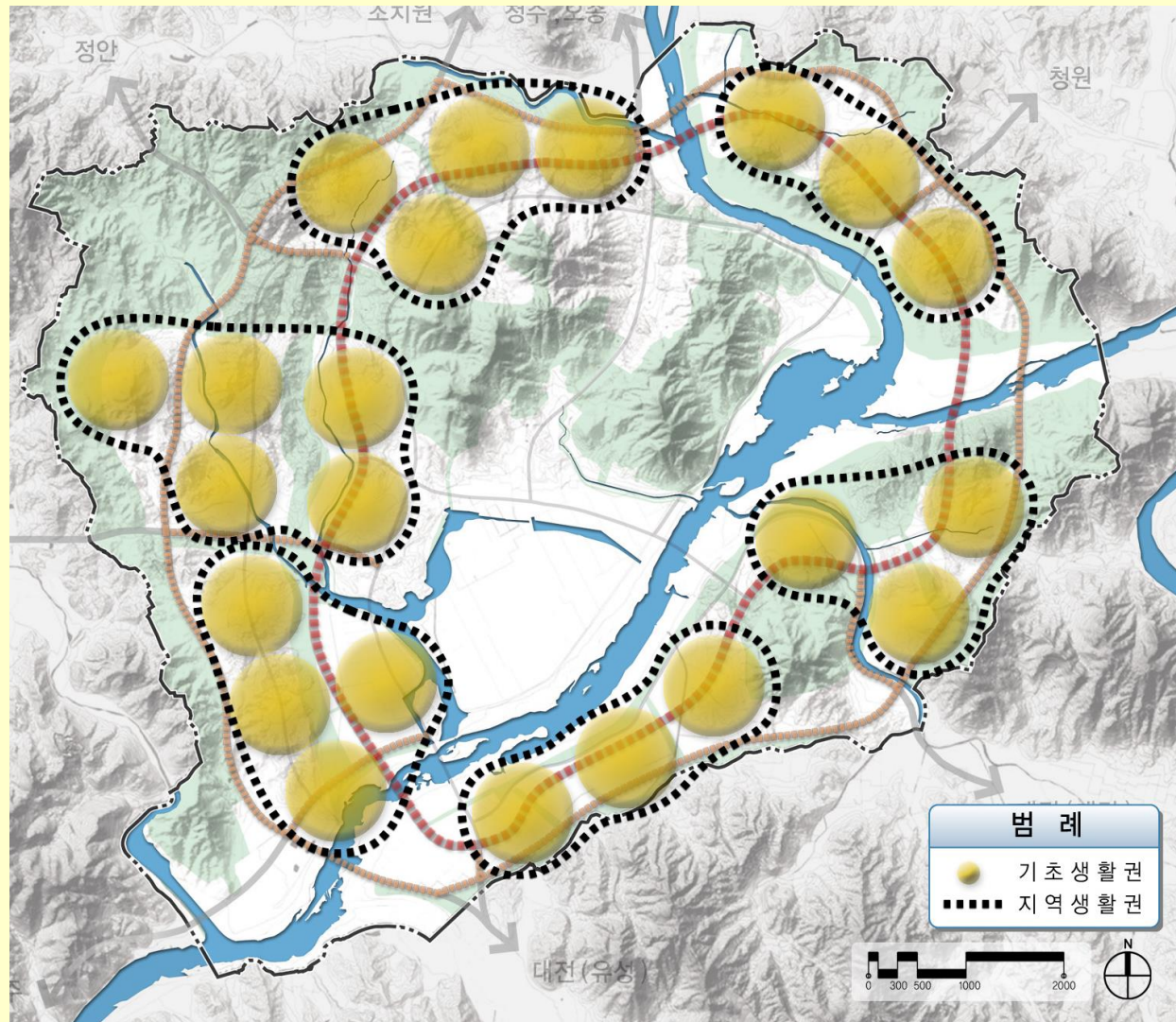
구 분	입지선정기준
중앙행정	광역적 접근편의성 상징성
국제/문화교류	중앙행정기능 및 수변공간 연계
도시행정	시민 접근성 도시 균형성장
대학/연구	대덕연구단지 연계
의료/복지	오송 생명과학단지 연계
첨단지식기반	기존 산업단지 입지활용





# 생활권 배치

- 인구 2~3만인 정도의 기초생활권 20여 개소
- 환상형 대중교통축을 따라 기초생활권 배분
- 환상형 대중교통축을 따라 4-5개의 도시기능거점을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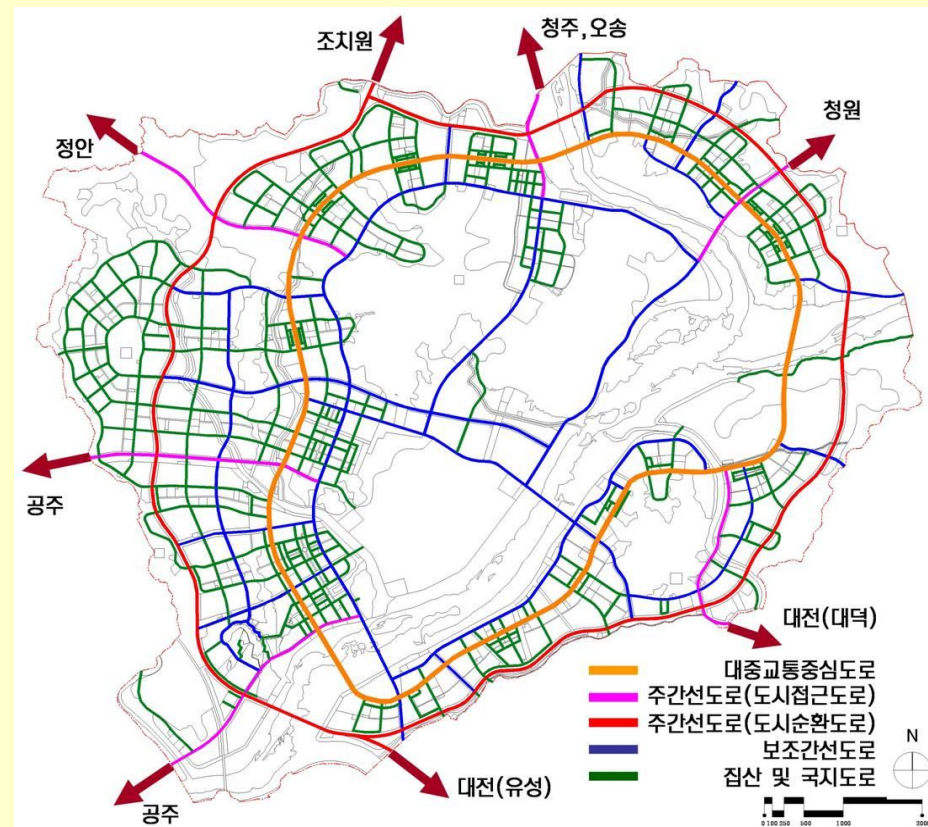




# 교통 및 환경계획

- 도시를 순환하는 BRT Line을 중심으로 (보조)간선가로 및 지역연계 가로의 균형 배치

- 생활권별로 이용형 공원(소공원,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을 배치
- 대중교통역사와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녹도 체계 구축
- 중앙부 공원은 도시의 심장부로 생산공원 역할



# 토지이용계획 종합

<토지이용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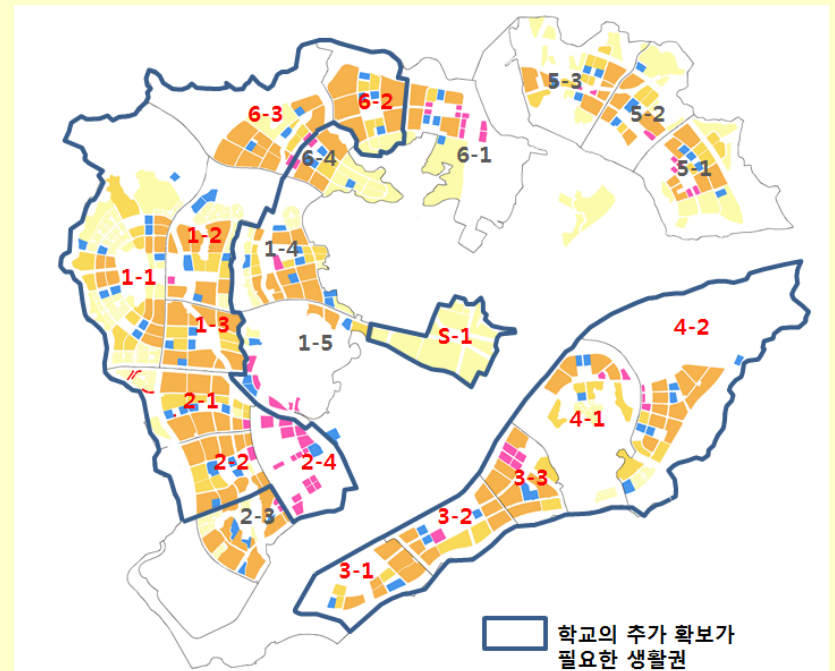


- 세종시 계획의 역사
- 시기별 계획의 배경과 특징 : 신행정수도에서 세종시 수정안까지
- 행정중심복합도시 디자인의 특징
- 개발진행과정 상의 몇 가지 문제들
- 세종시 되돌아 보기

# 인구구조의 변화

- 행복도시는 2011년 말 첫마을 입주 시작, 2014년 6월 말 현재 총 32,262명(10,480세대 ) 입주
- 가구당 세대원수 및 학령인구가 당초, 계획상 예상치 상회
  - 가구당 세대원수 3.08명 (2014.6) (전국평균 2.5)
  - 첫마을의 초등학생비율 11.6% > 대전권역 6.05% (2013)

--> 장래 학령인구 재추정, 학교 추가  
공급 필요



# 주거밀도 및 주택규모 조정

- 당초계획 대비 개발 불가능지의 증가, 주차장과 학교추가공급 등에 따라 주거용지 감소로 개발밀도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

- 학교부지를 추가할 경우 행복도시 총 개발밀도는 178.2%로 일산(170%), 판교(163%) 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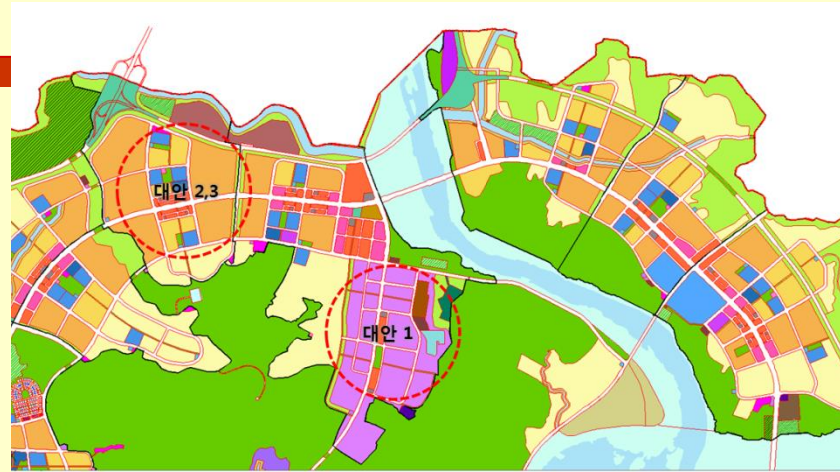
--> 평균 용적율을 170% 내외로 조정

- 대형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로 주택평형비율 조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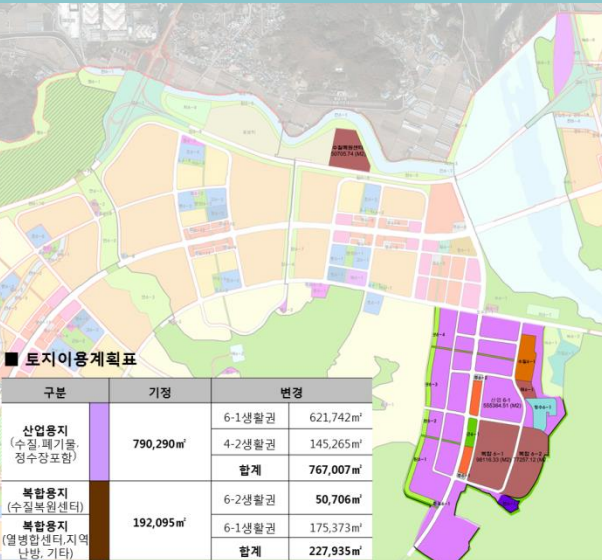
- 소형 : 중형 : 대형 비중 31.6 : 37.2 : 31.2 → 30 : 40 : 60
- 인구구조변화 및 장래 주택수요 예측 반영
- 주상복합의 대형평형 비중 축소

# 첨단산업단지 토지이용

- 현 위치는 인접교통 및 토지이용영향, 외부산업단지와 연계 측면에서 입지한계
- 4-2생활권으로 이동하는 첨단산업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첨단산업용지를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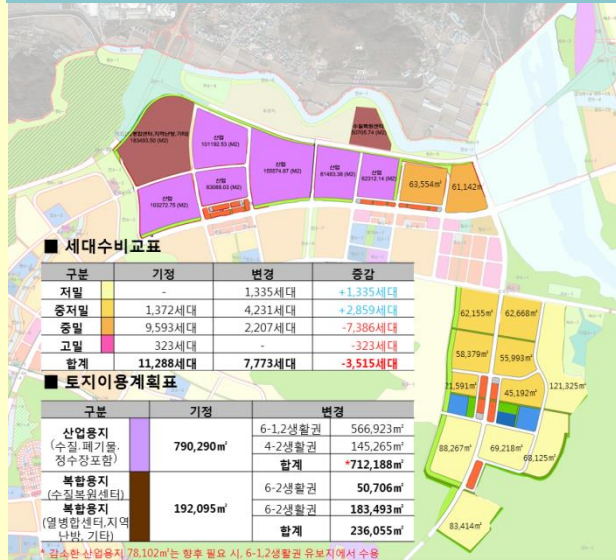


## 대안1 : 산업용지내 복합시설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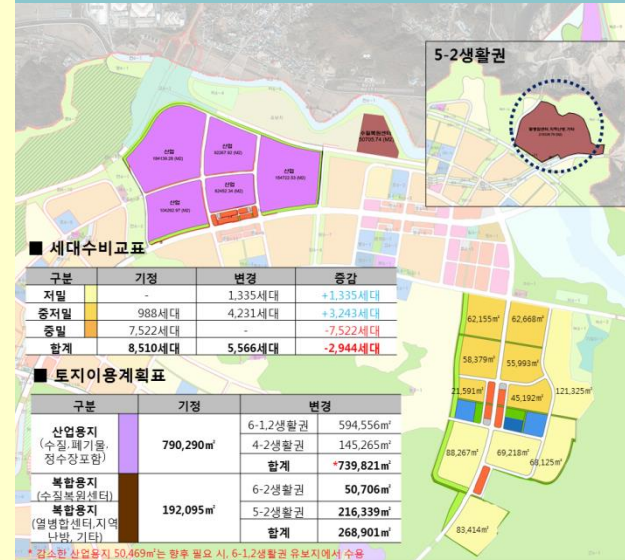
- 첨단산업용지 위치가 조정되지 않아 기존의 문제점 상존
- 복합시설 관련 민원 최소화 가능

## 대안2 : 6생활권 북측에 선형배치



- 첨단산업용지의 광역 접근성 및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 세대수 감소에 따른 대안 마련 필요

## 대안3 : 6생활권 북측에 집적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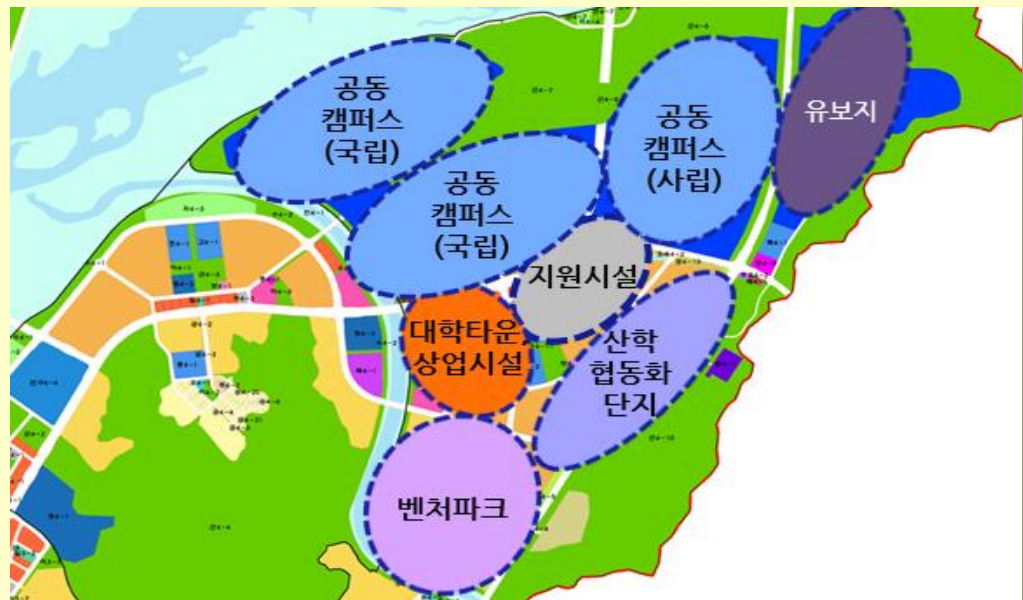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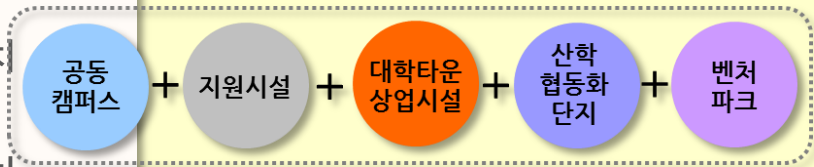


- 대안2와 동일하게 접근성 개선 및 5-2생활권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 세대수 감소에 따른 대안 마련 필요

## 4 생활권 토지이용 변경

### ● 우수대학 조기유치와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 공동캠퍼스 중심의 산학 클러스터 연계
  - 산학연 클러스터 관련 대학을 단지 북측에 배치
  - 단지 중심에 대학타운 및 지원시설 배치
  - 남측에는 산학 협동화 단지 및 벤처파크를 배치



- 세종시 계획의 역사
- 시기별 계획의 배경과 특징 : 신행정수도에서 세종시 수정안까지
- 행정중심복합도시 디자인의 특징
- 개발진행과정 상의 몇 가지 문제들
- **세종시 되돌아 보기**

# 세종시 되돌아 보기<sup>[1]</sup>

---

- 반쪽의 행정도시 : 정치적 갈등과 타협의 결과

- 초기안인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수정안인 경제중심도시 건설안이 모두 좌절됨으로써 청와대, 국회, 행정기능간, 그리고 행정기능 내부의 분리 초래

-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였는가?

- 기능이전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의 파급효과 미미, 충청권 일대의 개발 및 인구증가만에 기여
- 연계 추진했던 혁신도시(전국 9개 조성)도 개발수요 부족으로 자족도시 조성 난항

- 가시화되는 행정비효율성

- 현재 서울로 출퇴근 인구가 상당수에 이르며 잦은 출장으로 업무협력에 애로 → 장기적으로 비효율성 증대 가능성 존재

# 세종시 되돌아 보기[2]

---

- **인구 50만의 중추도시, 가능한가?**

- 현재 추이로는 인구 30만 이상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이 경우 자족성 확보 및 고급도시기능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 **대중교통중심도시 달성가능한가?**

- 대중교통 이용율 70%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의 도시규모, 시스템으로는 달성 여부 불투명

- **한 도시 내 두 도시: 도시의 상징성 약화와 기반시설 불균형**

- 연기군 잔여지역의 통합으로 인하여 원래 세종시 계획이 지니고 있었던 도시의 상징성, 기능적 통합성·일체성 상실
- 시간이 흐를수록 '통합된 세종시'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면서 도시의 상징성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



## 〈참고〉 답사계획

